마야투어
해외의 구석구석
현장의 손맛
☎ 02722-9001
신심의 동참요청까지를 꿈꾸는 성지순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이다
ARS 060-700-0048
불교신문 법보시 후원(한월당 5,000원)

1960년 1월 2일 창간 주간회 발행

불기 2557년 10월 26일(2013년 / 장기 4346년 불력 9월22일) bulgyo.com 대표전화 (02)730-4488 제2956호 토

佛教新聞

교육 기술개발 일자리 창출 불교NGO 영역 넓어졌다

불교계 국제구조개발 단체들의 사업영역이 인권은 물론 지원을 넘어 주민들의 역량강화 교육, 기술개발, 일자리 창출 등으로 다각화 되고 있다. 이는 불교NGO 역사가 10년이 넘어가면서 전문 활동가 양성, 재정 규모의 확대, 다양한 경험과 혜택 등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시점에 섰기 때문이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들 단체 활동의 가장 큰 특징은 건물이나 도로 등을 건설하는 시혜적 지원방식을 지양한다. 핵심 원지 주민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연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NGO단체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변화의 씨앗을 뿌린다면 그 역시는 '주민'에 방점을 두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도티스쿨드가 관념그에 씨랭림주 프놈그라몬 마을에 마련한 마을공동 지붕 작업장이다. 이 작업장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주민 자활모이기 명칭을 도모하기 위해 문을 열게 됐다. 지난 16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으며, 주민들이 직접 운영위원회를 조직해 앞으로 카펫장사에서 생산할 제품을 결정하고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판매해 소득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로티스쿨드는 이 뿐만 아니라 전가가 들어오지 않는 마가타 오지 마을에서 지속가능한 전통경제 에너지 보급 사업에 나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민들 스스로 축전을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보급함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기에 충분해 보인다.

현지 NGO활동가들을 위한 여럿 경쟁교육에도 나섰다. 미얀마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더프르라스쿨 로티스쿨드, 따마에, 에이주민운동은

시혜적 지원방식 지양
주민들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연대'

로티스쿨드·더프라스쿨
전문활동가 초청 교육
마을공동 자활작업장
마이크로 크레딧 등

지속가능사업 적극 전개

국제협력 등 4개 단체들이 연탄캠페 부문부터 지원받아 총 1억원의 미얀마 활동가를 초청한 것이다. 환교지 민사회의 경험을 배우기 위해 방문한 현지 활동가들은 이번 초청교육을 통해 아웅다운재다, 인권연대 등에서 배움의 시간을 가졌다. 참가 활동가들 또한 이번 이번 교육을 통해 수월한 인적자원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을 펼쳐줄 것을 한국NGO에 요청했다. 이들은 "한국NGO들이 미얀마를 돕겠다는 취지나 사업 실행을 당장보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한다"며 "주민과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들어와 활동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 모델을 만들어 가려는 노력도 눈에 띈다. 현지 정에서 더프라스쿨가 미얀마 포카에 마을에서 현지 NGO 로가네네이아 재다과 협력해 진행하고 있는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은 주목할 만하다. 마이크로크레딧은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에게 소액 자금을 무담보로 대출해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하루 1달러를 넘지 못하는 빈곤지역을 대상으로 고리대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사업에 앞서 지역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평가적으로 월례회의를 열어 주민 각자의 성향을 점검하고 개발한 전체를 보완해 나가고 있다.

박금호 로티스쿨드 총괄국장은 "처음에는 다소 속도가 늦더라도 주민들이 주체가 돼야 사업을 원하고 그 유용해 새력을 볼 수 있다. 시간에 앞서 지속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평가적으로 월례회의를 열어 주민 각자의 성향을 점검하고 개발한 전체를 보완해 나가고 있다.

박금호 로티스쿨드 총괄국장은 "처음에는 다소 속도가 늦더라도 주민들이 주체가 돼야 사업을 원하고 그 유용해 새력을 볼 수 있다. 시간에 앞서 지속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평가적으로 월례회의를 열어 주민 각자의 성향을 점검하고 개발한 전체를 보완해 나가고 있다.

11월12일 개원하는 조계종 중앙종회 정기법회를 앞두고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22일 한국불교여사문원가 개 교육원이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으로,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들이 재교육을 위해 마련한 연수교육 프로그램에 법계별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보고원이 신도조계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시행하는 선혜 종계 종사에 대해서도 성명을 들었다. 선혜는 신도종계 중 가장 높은 단계로 전문보살의 등과 같이 종단에서 시행하는 직접 자교육을 이수하거나 신행지도권력을 갖춰야 한다. 보살원은 오는 12월 등록 주여 선혜 종계 종사서용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열린 회의에 앞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34대 집행부가 출범할 수 있게 원만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모든 분사 주지 스님들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며 "34대 집행부는 2년(정)등록 편견아니 일체 차별 없이 행정서비스를 하고, 분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많상 지세를 낮춰 했으며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현경 기자

"편견·차별 없이 행정서비스 할 것"

전국 교구본사주지회의 가 지난 22일 오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렸다. 조계종 제34대 집행부 출범에 앞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교구본사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항상 지세를 낮춰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주 기자
ceojoo@bulgyo.com

전국 교구본사주지회의서
총무원장 자승스님 '감조'

내년도 예산안 비롯
스님 법계별 연수교육
신도 선혜종계 종사 '논의'

10·27법난 진상 제대로 알자

조계종이 10·27법난 33주년을 맞아 성남구원과 명예회장 등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10월22일 기념법회와 함께 전국 순례법회와 불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청훈토크콘서트 등이 눈길을 끈다.

조계종 총무원은 10월22일 오후2시 한국불교여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10·27법난 제33주년 기념법회와 추모 문학예술제를 개최한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에는 한국불교여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피해관리자 초청 간담회'가 마련된다. 이어 함께 10·27법난의 진상과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11월 중 제주와 광주, 충청지역에서 순례법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성봉지들과 법난의 역사적 의미를 공유하기 위한 '청춘토크콘서트' 도 열린다. 현안은 서울과 전주, 대구, 공주, 강릉 지역을 차례로 찾아 대한생불자들에게 10·27법난 사건을 소개하고 국가권력과 종교의 상관관계에 대해 성찰할 계획이다.

조계종은 "10·27법난은 한국불교 근현대사에 깊이 회대의 사건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불교는 민족주의의 중요성과 함께 한국의 민주화에 중요한 역할이 불교계에 있음을 재인식 했다"며 "장차는 33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도 그 진상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10·27법난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진정한 사과와 보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980년 10월말 일어나 10·27법난은 신군부의 주도로 3천여명의 군경합동병력이 전국 500여개 사찰에 난입해, 2000여 명의 스님과 신도들을 구연행해 고문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사건이다.

장양섭 기자 fam@bulgyo.com

불교신문 2014 불교신문 신춘문예 공모

불교신문은 불교문학 신예작가 등용문인 '2014 불교신문 신춘문예'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한국불교문인협회 수필은 문인들 배출에 큰 역사와 전통의 불교신문 신춘문예에 불교문학에 관심있는 신진작가들의 응모를 기대합니다.

■ 응 모 기 간 : 2013년 11월 11일(월) ~ 12월 11일(수까지)
■ 응 모 대 상 : 불교문학에 관심이 있는 신진작가
■ 응 모 분 야 : ①시조·단시 부문(2000자 분량과 3개월 내외)
②동화 부문(2000자 분량과 3개월 내외)
·시·시조 부문(2명), 그밖에 단편 중수상자 없습니다.
■ 상 금 : ①시조·단시 부문
·동화 부문(3명)
·시·시조 부문(3명)
▶ 당선자에게는 본 신문사 1년간 신문구독, 부부동반 경주 일정과 심사위원 전원의 축하글(원고) 기념지도 선물
▶ 연변대학 해외 파견교사로 추천, 부상 제공
■ 당선자발표 : 2014년 1월 1일 신년특집호 (당선자에 개별통보)
■ 접 수 처 : 서울시 중구 구리다동 13번지 한일회관 5층 불교신문사 신춘문예담당

불교신문사

■ 성철스님 열반20주기 3000배 현장 5면 ■ 근현대 불교문화유산 보고서 발간 11면

Buddhism Expo 2014
2014 불교박람회
참가업체모집

박람회 참가대상! 사찰건축·사찰공지보수 / 종단 및 사찰·단체 / 전통·예술 / 차 및 식품 / 불단 포교 / 불교 장례문화 / 사회봉등
참가안내 | 기본부스 - 독립부스
참가조건
· 스페셜관 불교용품 위주로 제품위한 불교관련 아이템이 가능한 것.
· 일반관 주제스상 및 상품가공품(식품 포함)인 구매용 아이템이 가능한 것.
· 불교의 의식 진행시 단 진행에 관하여 공동구매의 목적으로 판매할 수 있음.
· 불교의식(의) 공연(무용) 전통무예(기공) 공연(시 타스크 공동구매의 목적) 등 가능한 것.
· 단체 참여에서 제공하는 상품은 전시용이 아닌 판매용이 원칙이며 기본 3면의 공간을 제공 하는 것임.
참가문의 | 전화 02)2231-2013 이메일 bexpo@kaum.net

BUDDHA ART FESTIVAL 2014
2014불다아트페스티벌

한국전통문화의 꽃, 17대 불교문화!
한국 전통의 정서 영아 속 아름다움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보여주고자 합니다.
2013 Buddha Art Festival 이어
제1회를 맞이하는 불교미술·전통미술을 축제와 장터
자가닝들의 꿈을 펼쳐 무대드립니다.

2014년다아트페스티벌 참여자가 · 갤러리모집
■ 개인전시 참여 작가 · 갤러리 모집
참여대상 : 불교의 한국전통전래를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 갤러리 단체
모집부문 : 회화 · 조각 · 공예 · 사진 · 타피스리 등 모든 시각 매체 참여
참가장소 : 미술스 · 갤러리
■ 기획전 Art Donation Project (공간임대)
참여대상 : 작품의 가격이 고가이거나 불교미술 및 전통미술 작품
모집부문 : 회화 · 조각 · 공예 · 사진 · 타피스리 등 모든 시각매체 참여
참가방법 : 비영리 / 영리 / 개인 / 단체 / 종교 / 문화 / 교육 / 사회 / 기업 / 정부 / 지자체 / 언론 / 기타 등 모든 참여 가능
참가 기간 : 10,000원 / 1시간
■ 참가 방법
출품(다이)에서 선정되지 않은 분도 포함 접수
접수기간 2013년 9월 9일 ~ 12월 18일
접수방법 bulfilmmovie.net
(이메일 사용은 출품(다이)에서 선정되어야 이용 가능)

전화 02)2231-2013
팩스 02)2231-2016
홈페이지 www.bexp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bexpo